

책과 사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8개 단체가 신간 할인율 19%를 허용한 출판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를 제기했지만, 2011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각하’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출판사와 서점 대표들이 온라인서점 예스24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정가제 위법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민사 소송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도서정가제에 대한 법적 명분을 얻었다면 출판인들의 소원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현재 온라인서점에서는 18개월 미만 신간에 대해 19%까지 할인을 한다(할인율 10%+적립 마일리지 10%), 그러나 500일 혹은 1,000일 추가 할인 쿠폰이 있어 사실상 할인율 19%라는 말은 유명무실하다. 출판사는 (혹은 온라인서점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면서 온라인 서점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이다. 거기에 18개월 이상 구간 도서에 대해서는 무제한 할인을 하는데, 어떤 도서는 0원

당신은 책을 얼마에 사십니까?

에 구입할 수도 있다(신간과 구간을 합쳐 50% 이상 할인하는 경우 구간은 0원이 될 수 있다). 출판사가 도서정가제를 무시하면서 책을 팔고 있는데, 독자들이 제값에 도서를 구입할리는 만무하다. 지금은 가격 2.0 시대 아닌가! 똑같은 상품이라도 소비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여타 제휴 신용카드나 통신사 마일리지를 가지고도 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만 원짜리 도서를 누구는 9,000원에 살 수 있지만, 누구는 그 이하로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도서정가제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출판인들이 독자들에게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명분이 이제는 없다. 그리고 출판인들이 도서정가제를 위해 (거절해 말하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출판은 문화산업이라는 관념적 구호만 머릿속에서 되뇌일 뿐 김진숙처럼 크레인에도 올라가지 않았다(대학생들조차도 등록금 인상 때문에 학발 투쟁을 하는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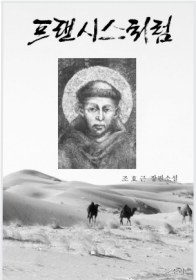
지금 도서정가제를 위해 출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기심을 버리는 일이다.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에서 온라인서점에 도서정가제를 무력화시키는 할인 이벤트를 전연력스럽게 하는 출판사들은 모두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위법을 한다.

둘째는 도서정가제가 프랑스의 랑방처럼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도서 화형식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옥상에라도 올라가야 한다. 셋째는 책에 정지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출판이나 해외 도서에 대한 ‘문지마시’ 계약이 아닌 독자들이 꼭 읽어야 할 양서를 출간하는 일은 독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출판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박상문 / 평단문화사 편집장

“부패한 교회여, 탁발과 거리 전도에 나서시오!”

13세기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의 삶 소설로 그려내



〈프랜시스처럼〉  
조효근 지음/들소리 펴냄

13세기 로마제국 교회의 전성기에 도리어 교회의 부패와 기독교의 절망을 외치며 통곡했던 사람, 교회가 회생할 유일한 방법으로 탁발(托鉢)과 거리 전도를 내세웠던 사람, 그는 결국 다수의 맘몬주의자들에 의해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바로 13세기의 기독교 개혁자 프랜시스(1182~1226년)이다. 〈프랜시스처럼〉은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의 삶을 소설로 그린 것으로 ‘대형’을 성공 기준으로 삼는 오늘날의 교회에 다시금 예수로 인하여 가난을 자처했던 프랜시스의 ‘탁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프랜시스는 1182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부유한 포도상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와 프랑스로인으로 신앙심이 깊은 파카 부인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젊은 날의 프랜시스는 활발한 성격으로 ‘기사’를 꿈꾸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쾌락으로 점철된 방종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젊은이다운 기개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경험도 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그를 강하게 불렀다.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집’을 고쳐 건물로 인정한 탓에 한동안은 교회 보수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패와 어긋난 기독교의 방향을 바로잡길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곧바로 자신의 신분과 보장된 미래를 벗어날지고 수도사의 길에 나선다.

13세기 로마제국 교회의 전성기에 기독교 절망을 고발했고, 예수 제

림 외치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변화를 촉구했으며, 예수의 가난과 절대 사랑의 실재를 위해서 그 시대 로마의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탁발수도단을 만들어 탁발과 거리 전도를 선두에서 지휘했다.

교황부터 바티칸을 들고 탁발행에 나서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과격을 제시함으로써 당대에는 교관을 전 이들로부터 배격당하고 유배생활을 해야 했다. 모처럼 풍요를 만끽하던 교회는 프랜시스의 외침을 묵살했다.

특히 그가 온갖 역경을 딛고 제5차 십자군 전쟁터로 달려가서 이슬람 총사령관인 알 카밀과 ‘평화 약속’을 받아낸 사건은 오늘날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적대관계로 볼 때 놀라움을 안겨준다. 그는 알 카밀을 감복시키고 종교와 평화문제 해결에 일치점을 나누며 십자군 전쟁 종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는 그의 수도단을 세속적 실력자가 장악한 것을 목도해야 했고 말년에 동시물들과 벗하며 수도원 내부에 갇혀 지내야 했다. 단식 기도 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섯 개 상처(五傷)를 갈라했던 그는 그 흔적을 몸에 입고 숨을 거두었고, 2년 후인 1228년에 성인 반열에 올랐다.

소설가이며 목사로 성결대학교에서 37년 간 교회사 강의를 해 온 저자 조효근 목사는 프랜시스에 대해 “내부에서의 저항, 내면에서의 승화, 긍정의 방식으로 부정적 대상을 제어하는 용인술, 다시 말하면 완전히 불완전을 극복하려드는 절묘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를 완벽에 가까운 방식으로 소화해낸 선구자였다”고 밝히고 있다.

박선을 가미해 프랜시스의 생애를 능동적 행위위주로 구성한 소설은 ‘대형’의 골리에 빠져 허덕이는 오늘날의 교회에 경종을 울린다.

정찬양 기자



“성탄, 하나님의 최고 선물”

성탄의 의미와 관련된 전통 살펴



〈성탄 이야기〉  
이용원 지음/홍림 펴냄

성탄절, 올해도 그냥 해마다 해오던 행사나 교회의 반짝이는 성탄 트리에 환호하는 것에 머물러야 할까.

성경과 신학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이용원 교수(서울장신대학교)는 인류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은 날인 성탄을 그저 매년 반복되는 낯으로 여기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먼저 변화의 급물살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성탄절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는 진리”를 일깨우는 절기임을 상기시키면서 12개의 코너를 통해 좀 더 뜻 깊은 성탄절을 맞고 기릴 수 있도록 꾸몄다.

이 교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살펴면서 특히 교회와 슬픔과 실패, 위함과 혼란, 두려움과 죄책감 등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들을 맞이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오늘날 현실일수록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함을 역설한다.

〈성탄 이야기〉는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성탄 이야기를 정리하고 복음서에 기록된 아기 예수 탄생의 신비를 추적했다. 2부는 성탄절 전통과 관련된 이야기로 꾸몄다. 전나무가 크리스마스트리로 쓰여진 문화 같은 이야기, 예수님 탄생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산타클로스가 등장한 배경도 전한다.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는 지역 등 각 국의 성탄 표정도 살폈다.

“변질된 성령운동 경계해야”

‘빈야드’ ‘신사도’ 운동 등 분석

“어느덧 한국교회에 직통계시파가 들어와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경을 내리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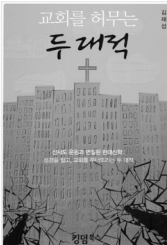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은 성령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빈야드 운동’의 맥을 이은 ‘신사도 운동’과 ‘직통계시파’에 대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이끄는 비성경적인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교회들이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인 김재성 교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사이비 이단 집단에 흔들리는 현상을 지적하며 가장 영향을 끼치는 집단으로 1990년대 한국교회를 휩쓴 ‘빈야드 운동’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빈야드 운동’에 빠진 자들은 앞 다투어서 성령운동을 받아들이고 성공과 특별은혜에 열광했다”며 “마침 그들만이 가장 최선의 기독교 교회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교회와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예배와 기도와 조직을 바꾸었다”면서 한국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짚는다.

김 교수는 또 ‘빈야드 운동’의 맥을 이어 ‘신사도 운동’과 ‘직통계시파’가 오늘날에도 “영웅심에 빠진 목회자를 유혹해서 변질시키고, 최선의 기독교 교회라고 위장하여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들 운동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김재성 지음/킹덤북스 펴냄



심자! 키우자! 추수하자! (고전 3:6)



담임 : **구영하** 목사

주일예배 08:30 11:00 19:30  
새벽예배 05:00 / 수요일예배 19:30  
금요, 십자가기도회 21:30

**안 성성결 교회**  
경기도 안성시 봉곡동 347  
☎ 031) 6745-2347 (F) 676-2347

3사(감사,찬사,봉사)로 행복한 교회



담임 : **백종선** 목사

주일예배 07:00 09:00 11:00 14:00  
새벽예배 05:00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00

**순복음세광고교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38-1  
☎ 02) 404-1980(교), 431-0869(목)  
(F) 404-4429

우리는 주안에서 하나 (요 17:21~23)



담임 : **조일배** 목사

주일예배 : 07:30 09:30 11:30 15:00  
새벽예배 05:30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2:00

**수정성결교회**  
인천시 서구 봉곡동 416-4  
☎ 032) 588-0671~9 (F) 032) 582-2738  
http://www.scojung.or.kr/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 하나님 (사 46:1~3)



담임 : **이흥배** 목사

주일예배 07:00 09:00 11:00 14:00  
새벽예배 05:00 / 06:30  
수요일예배 11:00 / 19:30  
금요일예배 21:00

**신림동교회**  
서울시 관악구 신림 10동 306-39  
☎ 02) 689-0891, 887-0890(금)

표어 :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 복을 받자(골 3)



담임 : **김경진** 목사  
(홍소리 편집 본부장)

주일예배 : 11:00 14:00  
새벽예배 05:30  
수요일예배 19:00 / 금요일예배 20:00

**문현교회**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현리 51번지  
☎ 053) 583-1404(교), 591-1829(사)  
H.P : 011-517-1824

‘들소리’ 문서선교에 동참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표어 : 예수님을 닮아가자 (고전 11:1)



담임 : **고경호** 목사

주일예배 11:00 17:00  
새벽예배 05:00  
수요일예배 19:00 / 금요일예배 20:00

**창곡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47-2  
☎ 031) 421-9502, 7102 (F) 421-9617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사 40:1~11)



담임 : **한태수** 목사

주일예배 07:00 08:30 10:00 12:00 14:00 19:30  
새벽예배 05:00 05:15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00

**은평교회**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85-38  
☎ 02) 383-0071 (F) 386-6721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담임 : **김민수** 목사

주일예배 09:00 11:00 14:00 19:00  
새벽예배 05:00 09:00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00

**고천교회**  
경기도 의왕시 소사동 305-10  
☎ 031) 457-5435~7 (F) 031) 457-5438

표어 :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담임 : **배요나** 목사

주일예배 11:00 19:30  
새벽예배 05:00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00

**복있는교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8-6  
☎ 032) 311-0891 (F) 346-3927

표어 :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사람들



담임 : **송덕준** 목사

주일예배 07:00 11:00 14:00(청년예배) 19:00  
새벽예배 05:00  
수요일예배 19:00 / 금요일예배 21:00

**독일교회**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78-8  
☎ 02) 655, 881-9345(교), 838-4242(목)  
(F) 854-1442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김종순** 목사

주일예배 : 1부 09:00 2부 11:00 3부 14:00  
새벽예배 05:30  
수요일예배 20:00 / 금요일예배 20:00

**화양감리교회**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215  
☎ 02) 236-0033

표어 :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요 15:1~8)



담임 : **장필수** 목사

주일예배 : 07:30 09:00 11:00 14:00  
새벽예배 05:00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00

**예수소망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86-2번지  
☎ 02) 948-1004 (F) 948-1003

표어 : 성탄절을 부끄러워하지는 성도의 자세 (누가복음 1:28~38)



담임 : **고용복** 목사

주일예배 08:00 10:30 12:30 14:30  
새벽예배 05:00 06:00 09:00  
수요일예배 1부 15:00 2부 19:00  
금요일예배 21:30

**신월동교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170-1  
☎ 02) 2603-2427 (F) 2605-7106

【예배안내】  
문의 : (02)3676-3084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김종순** 목사

주일예배 : 1부 09:00 2부 11:00 3부 14:00  
새벽예배 05:30  
수요일예배 20:00 / 금요일예배 20:00

**화양감리교회**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215  
☎ 02) 236-0033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손진익** 목사

주일예배 07:00 09:00 11:00  
새벽예배 05:00 06:00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00

**등촌제일교회**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43-9  
☎ 02) 3663-9041~2 (F) 3661-9982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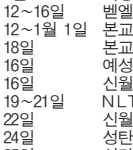


담임 : **장 빈** 목사

주일예배 08:00 11:00 14:00  
새벽예배 05:30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00

**동광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83-21  
☎ 02) 563-1254~6 (F) 556-1225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장 빈** 목사

주일예배 08:00 11:00 14:00  
새벽예배 05:30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00

**동광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83-21  
☎ 02) 563-1254~6 (F) 556-1225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복음 3:1~6)



담임 : **최이우** 목사

주일예배 06:00 08:00 10:00 12:00 15:00 17:00  
새벽예배 05:20  
수요일예배 19:00 / 금요일예배 19:00

**종교교회**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32번지  
☎ 02) 632-2100 (F) 631-1949  
www.chongkyo.net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김경진** 목사

주일예배 : 09:00 11:00 14:00 19:30  
새벽예배 04:45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00

**호남교회**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3  
☎ 063) 275-4724, 277-5784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이윤구** 목사

주일예배 08:00 11:00 14:00  
새벽예배 05:00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30

**서부교회**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208-1  
☎ 02) 702-1635, 702-3767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나세웅** 목사

주일예배 09:00 11:00 14:00 19:00  
새벽예배 05:00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00

**신림동중앙교회**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604번지  
☎ 02) 886-0354, 011-729-9766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이흥배** 목사

주일예배 : 07:00 08:30 10:00 11:30 13:30 19:30(하월기) 19:00(동월기)  
새벽예배 04:40 06:30  
수요일예배 19:30(하월기) 19:00(동월기)  
금요일예배 22:30(월일 새벽 1시)

**바울교회**  
전주시 완산구 서산신동1기 87번지  
☎ 063) 287-288-1004 (F) 283-1005  
www.paulchurch.com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박태훈** 목사

주일예배 : 09:00 11:00 14:00  
새벽예배 05:00 06:00  
수요일예배 19:00 / 금요일예배 20:30

**청주서문교회**  
청주시 청원1동 188  
☎ 043) 264, 268-5020 (F) 266-9575  
http://www.wndchurch.or.kr/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김성연** 목사

주일예배 09:00 11:00 19:00  
새벽예배 05:00  
수요일예배 19:00 / 금요일예배 21:00

**시흥중앙교회**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70-27  
☎ 02) 802-5390 (F) 892-6225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홍재철** 목사

주일예배 07:00 09:00 11:30 15:00  
새벽예배 05:00  
수요일예배 19:00 / 금요일예배 20:30

**경서교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351번지  
☎ 02) 684-9241~6 (F) 684-9240  
www.kyounseo.org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이기운** 목사

주일예배 08:30 11:00 14:30(연합찬양)  
새벽예배 06:00(일~금)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2:00

**평강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각동 719-1  
☎ 02) 313-3933, 313-3331

표어 : 생육하고 번성하라



담임 : **주남석** 목사

주일예배 08:30 11:00 15:00 19:00  
새벽예배 04:50 / 화요일예배 10:30  
수요일예배 19:30 / 금요일예배 21:30

**세한교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문동 888  
☎ 031) 296-9101~2, 295-0776(성교회)